

친정팀 또 올린 '냉정한 차우찬'

삼성과 원정경기 8이닝 1실점 4승
윤성환과도 자존심 건 명품 투수전

박용택 결승포·양석환 만루포...LG 6연승
삼성 윤성환 1100K·이승엽 3880루타 新



LG 좌완선발 차우찬(30)은 1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마운드에 1회말 올랐다. 전과 달랐던 결정적 차이는 1회초가 아닌 1회말이라는 점이었다.

삼성의 푸른 유니폼이 아닌, LG의 원정유니폼을 입은 채로. 삼성 1번타자 박해민을 상대로 첫 공을 던지기 전, 차우찬은 모자를 벗고 3루측 대구 홈팬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2006년 삼성 입단 이래 2016시즌을 마치고 95억원 프리 에이전트(FA) 대형계약으로 이적하기까지, 자신을 성원해준 대구 팬들을 향한 감사의 표시였다.

그러나 그런 고마움과 별개로, 삼성과 대구 팬들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열망도 강렬했다. 특히 이날 삼성의 선발투수는 2011~2014년 한국시리즈 4회 우승을 합작했던 멤버인 우완투수 윤성환(3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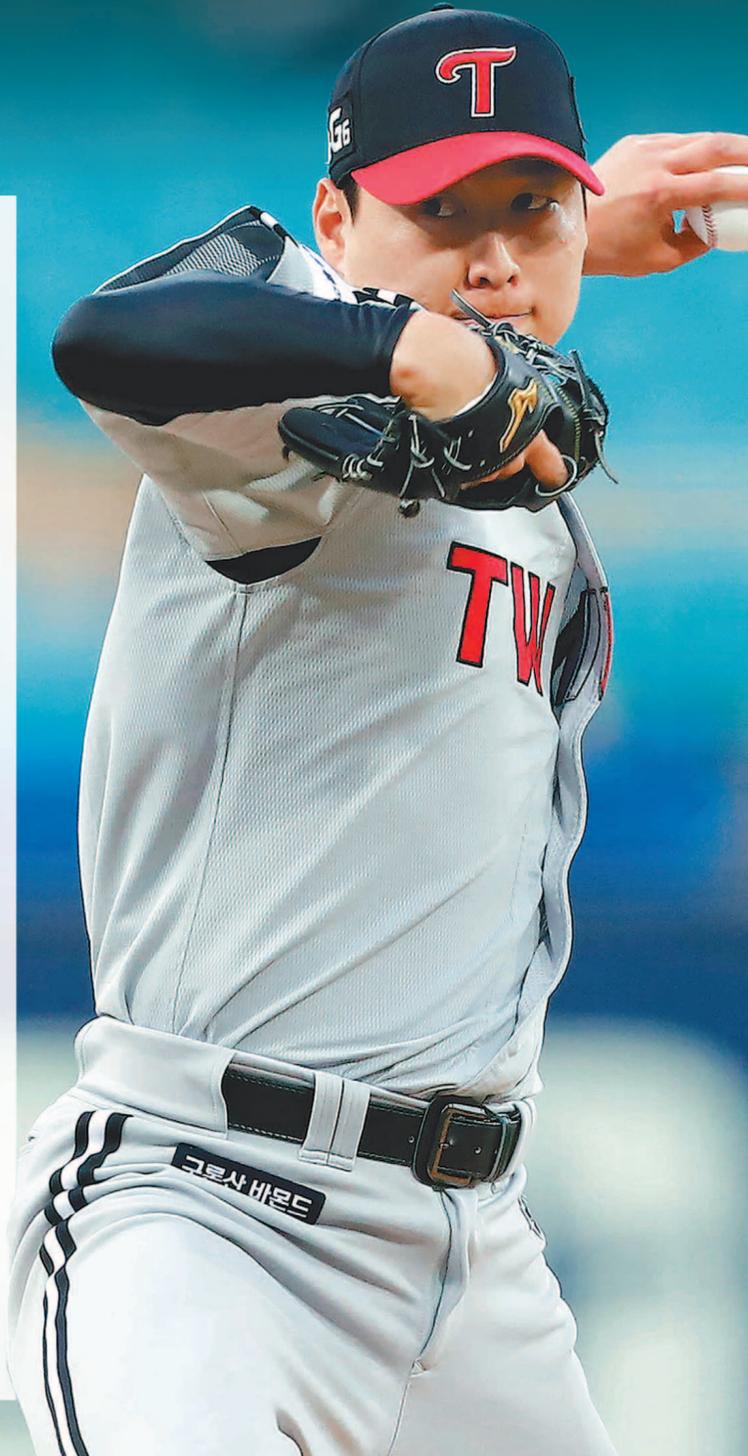
KIA, NC와 3강을 형성하며 이미 20승을 돌파한 LG와 바닥을 뚫고 지하사로 간 꼴짜 삼성의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도, 그와 무관하게 두 투수의 클래스는 불꽃을 튀겼다. 윤성환은 당대 최고의 컨트롤러답게 8안타 1볼넷을 내주면서도 핀 포인트 컨트롤로 LG의 결정타를 피해갔다. 3회초 1사 3루에서 허용한 LG 히메네스의 희생플라이도 삼성 중계플레이가 매끄러웠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실점이었다. 윤성환은 105구를 던진 상황에서도 7회 마운드에 올랐다. 2사 후 LG 박용택의 평범한 내야플라이를 삼성 포수 이지영이 놓치지 않았어도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포구 실책 후 안타를 맞고 121구를 던진 채 교체됐다. 승운은 또 한번 윤성환(1승3패)을 외면했다.

반면 차우찬은 구위로 삼성 타선을 압도했다. 8회까지 115구를 던지며 4안타 무4사구 4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유일한 실점은 3회 삼성 이원석에게 맞은 홈런뿐이었다. 투구수가 늘어날수록 공이 좋아지는 차우찬의 특성이 또 한번 발휘됐다.

LG는 7회 2사부터 구원 등판한 삼성 장필준을 9회 1사에서 흔들었다. LG 박용택이 풀카운트에서 시속 147km짜구를 밀어 쳐 결승홈런을 만들어냈다. 이어진 2사 만루에서 LG 양석환은 삼성 마무리 심창민 상대로 만루홈런을 터뜨려 대세를 결정지었다.

KBO리그 득점권 피안타율 1위다운 위용을 뽐낸 차우찬은 시즌 4승(2패)에 성공했다. 6-1로 이긴 LG는 6연승을 달렸다. 삼성은 윤성환의 통산 1100탈삼진, 이승엽의 KBO 루타 신기록(3880루타)이 나왔어도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프로야구 관련기사 2·3·4·6면
대구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차우찬(30)은 1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마운드에 1회말 올랐다. 전과 달랐던 결정적 차이는 1회초가 아닌 1회말이라는 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스포츠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선거운동기간에는 광주에서 해태 유니폼을 입고 '야구 캠페인'을 펼쳤다. 스포츠동아DB

'야구팬' 문재인 대통령 시대 체육계도 변화의 바람 분다

생활체육 확대 등 스포츠복지국가 추진
평창올림픽·남북체육교류 탄력받을 듯

'문재인 대통령 시대, 스포츠복지국가를 향해 간다'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64)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스포츠에 많은 애정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의 취임이 체육계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식 공약집을 통해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비롯해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생태계 조성 ▲체육특기자 임시전형의 획기적 개선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체육인 복지 증진과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스포츠산업 육성 등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남북체육교류 재개로 남북의 화해협력 등 7대 체육정책도 발표했다.

야구 명문인 경남고 출신의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중 부산과 광주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레전드들과 함께 유세에 나서는 '야구 캠페인'을 펼쳤고, 이 같은 노력들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특히 체육계가 그동안 적잖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체육계의 기대는 남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에서 비롯된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로 체육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연루된 체육특기생 입시비리 문제가 터졌고, 최순실의 조카 장지호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련의 사건은 큰 충격을 줬고, 그 상처는 고스란히 체육인들의 몫이 됐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체육인 1만명이 지지선언을 하는 등 체육계에 문 대통령 응원 목소리가 컸던 것은 체육계 공정성 회복의 책임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또 내년 2월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미 "평창동계올림픽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만큼 정부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문재인 시대'가 연예계에 미칠 파장은? 17면

LG 차우찬이 2006년 입단해 11년간 동고동락했던 '친정팀' 삼성을 상대로 일격을 가했다. 차우찬은 이적 후 첫 대구 방문인 10일 삼성전에서 8이닝 1실점 호투로 팀의 6연승을 책임졌다.
KBO리그 경기 결과 <10일> 잠실 SK 0 : 6 두산 대전 롯데 8 : 1 한화 광주 kt 3 : 0 KIA 대구 LG 6 : 1 삼성 마산 넥센 0 : 3 NC

지금 가장 필요한 메뉴, 불황속에 나홀로 호황 메뉴!!

연탄불고기+연불국수

= 4,900원

연탄불고기 + 연불국수

연탄 불고기와 국수의 조화로 이뤄진 단순하고 저렴한 메뉴,
높은 품질과 푸짐한 양까지... 파격적인 가격 4,900원에 팔아도
높은 마진을, 오픈점마다 초대박! 손님과 점주 대만족! 행복한 성공!

연탄 비빔국수 연탄 돈가스 연탄불고기 만두/군만두

연탄불고기 비빔밥 연탄불고기 덮밥 연탄불고기 주먹밥

연탄불고기 주는 국수집

연불국수

연불국수전문점 및 업종변경모집

연불국수 전문점 매장 내부

매출이 없어 죽어가는 식당을 살리는 **불왕탈출 대박 메뉴!**
업종변경만으로도 인근상권에서 경쟁력 NO.1!

- 완제품 식자재를 공급하므로 매장에서 연탄으로 불고기를 굽지 않아도 됨
- 50년 전통 연탄국이 전문 노하우로 수작업 연탄불고기 진공포장 유통
- 12시간의 핏물제거, 12시간의 양념숙성으로 불고기의 맛과 질을 상승
- 불경기에는 파격적인 착한가격이 대세! 그러나 마진율은 상상 그 이상!
- 15분부터 중대형 매장까지 최소자본 창업 및 업종변경만으로도 초대박!

상담문의 **02) 951-8882**

(주)이베스트윌 **NAVER** 소비자창업 연불국수 가맹사업

OPEN
오픈예정점

- 연산중앙점
- 부평점
- 용남점
- 영일점
- 호계점
- 청주 북성점